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올림피아 필즈 CC에서 열린 KPMG위민스PGA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에서 세계랭킹 1위 유소연이 5번 홀 티샷을 하고 있다.

“US오픈, 내 삶의 터닝포인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 “이번 주 또 한 번 메이저 대회 우승하고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은 세계 여자골프 특급대회인 US여자오픈에 대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 준 대회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유소연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서 열리는 US여자오픈(총상금 500만 달러)을 앞두고 가진 LPGA 단검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 시즌 유소연은 미국 진출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 한 뒤 지난달 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또 다시 정상에 등극하며 통산 3승 중 2승을 최근 3개월 사이에 따냈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하며 3주째 골프 여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소연은 2011년 US여자오픈 우승을 계기로 본격적인 LPGA 투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년 동안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올 시즌 긴 터널을 뚫고 빛을 봤다.

유소연은 “2011년 우승 당시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 삶의 많은 걸 바꾼 가장 큰 터닝포인트 중 하나”라며 “올해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고 있어 느낌이 좋다. 이번 주 또 한 번 메이저 대회서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소연은 올 시즌 LPGA 투어 우승자 가운데 유일한 다승자다.

올 시즌 12개 대회에 출전해 9차례나 ‘톱10’에 들었다.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당시 렉시 톰슨(미국)의 발타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즌 2

승에 성공하는 등 강한 정신력을 발휘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해외 배팅업체들도 대부분 유소연을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다만, 최근 아버지의 세금 체납으로 한국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또 다른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대회를 임하게 됐다. 이를 어떻게 털어내는가가 우승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소연은 “세계 1위가 되고 이전보다 주목을 받고 있어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면서도 “연습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오늘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어르신게이트볼 대회 개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열린다.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게이트볼협회 주관하는 ‘제22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전주시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전주시내 40여개 클럽 회원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동호회별로 3~4개 팀씩 2개 파트로 조별 예선 링크전을

거친 후, 상위 2팀이 결선 토너먼트전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이트볼은 경기 규칙이 쉽고 육체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어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여가 활용 스포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용진 전주시게이트볼협회장은 “타 종목에 비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게이트볼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가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게이트볼이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대중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2주차 전승 도전

15일 아르헨티나전 시작으로 16일 페루·17일 폴란드 상대

국제배구연맹(FIVB)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에 출전 중인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폴란드에서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은 오는 1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전을 시작으로 페루(16일), 폴란드(17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한국은 1주차 불가리아 시리즈에서 2승1패를 거뒀다.

독일을 넘는데 성공했지만 불가리아에 달미를 잡히면서 3연승을 놓쳤다.

12개국이 참가하는 2그룹에서는 총 4개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권을 확보한 체코를 제외하면 상위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여기서 우승한 팀은 내년 시즌 1그룹으로 승격한다.

현재 승점 7로 3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이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리즈에서 최대한 승

점을 벌어야 한다.

최대난점은 역시 폴란드다.

폴란드의 세계랭킹은 22위로 한국(10위)보다 12계단이나 낮지만 대회 출전 횟수가 적어 랭킹 포인트를 쌓지 못했을 뿐 실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배구계의 평가다.

지난해 폴란드는 이 대회에서 2그룹 2위를 차지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결선전에서 초반 두 세트를 따내며 1그룹 승격을 목전에 뒀지만 내리 세 세트를 빼앗기며 준우승에 그쳤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14차례 맞붙어 4번 밖에 이기지 못했다.

2그룹 상대팀들 중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팀이 폴란드다.

폴란드는 수원에서 진행된 3주차 경기 때 다시 한 번 만나야 하는 상대인 만큼 이번 일전은 기선 제압의 의

도도 짙어졌다.

한국은 월드스타 김연경(상하이 구오후아 라이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연경은 일부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인 1주차에서도 집중 경제를 뚫고 진가를 입증했다.

김연경을 보좌할 박정아(한국도로공사) 등이 제 몫을 해준다면 목표 달성은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홍성진 감독은 “어무래도 가장 힘든 경기는 폴란드전이 될 것이다. 폴란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랭킹 10위로 한국과 순위가 같지만 폴란드보다는 전력 이 좋지 않다.

1주차에서도 전패를 당했다.

세계랭킹 29위의 페루전은 비교적 순위는 승리가 예상된다.

/김민근기자

로빈슨 카노, MLB 올스타전 연장 결승 홈런 ‘생애 첫 MVP’

로빈슨 카노(35·시애틀 매리너스)가 홈런 한방으로 팀 승리와 생애 첫 올스타전 MVP의 주인공이 됐다.

카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펼쳐진 2017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1-1 동점이던 연장 10회초 결승 홈런을 때려내며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진 가운데 카노는 호세 알투베(휴스턴 에스트로스)와 조나단 스톡볼티모어(오리올스)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3번째 2루수로 교체돼 기회를 잡았다.

7회 첫 타석에서는 브래드 핸드(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3구 삼진을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그러나 정규 이닝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에 돌입했고 10회초 카노에게 기회가 왔다.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카노는 웨이드 데이비스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자신의 8번째 올스타전 경기 만에 쏘아 올린 첫 홈런포이자, 5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승리에 뼈를 박는 결승 홈런이었다.

연장전까지 진행된 올스타전에서 홈런이 나온 것은 지난 1987년 토니 페레즈 이후 50년 만이다.

이 홈런포 한 방으로 카노는 8번째 올스타전 출전 만에 생애 첫 올스타 MVP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 투수진은 타자들을 유박시키며 4회까지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와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 크리스 세일(보스턴 레드삭스)는 물론 볼펜진도 점수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5회 아메리칸 리그가 스톡볼의 2루타에 이은 미구엘 사노(미네소타 트윈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뽐냈다.

그러자 내셔널리그 올스타는 6회말 1사에서 아디에르 몰리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어빈 산타나(미네소

타 트윈스)로부터 솔로 홈런을 때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팀 모두 리그 정상급 셋업맨과 특급 마무리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며 다시금 홈플레이트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한 끝에 카노가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데이비스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는 홈런을 때려내며 승부를 갈랐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